



보도 일시	2022. 5. 23.(월) 14:00	배포 일시	2022. 5. 23.(월) 14:00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 김이한 (044-215-2510)
		담당자	서기관 태원창 (taewc@korea.kr)

추경호 부총리, 첫 「확대간부회의」 개최

- 정책대응 역량 강화와 일하는 방식의 과감한 혁신 당부 -

-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'22.5.23(월) 10:40,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

* (일시·장소) 5.23.(월) 10:40~11:50, 세종(기획재정부 대회의실)-서울 영상연결
(참석자) 부총리, 1차관, 1급, 국장 및 심의관, 실국별 총괄과장 등

- 이번 회의는 ①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총괄과장급까지 전간부가 참여하고, ②일체의 서면자료 준비 없이, ③타이머 비치, 국별 보고시간 제한 등을 통해 효율적·생산적 회의로 진행

→ 직원들의 불필요한 회의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

-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 돌파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

① 단기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, 2차 추경의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와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

②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, 공공기관 혁신방안,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, 세제개편방안,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정책 준비 철저

- 이 과정에서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실히 반영할 것

③ 가계부채·국가부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: 재정준칙 마련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방안 강구

- ④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: 외환·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, 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
- ⑤ 과감한 규제개혁 과제를 준비할 것: 기업·전문가들과 연구기관·NGO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, 덩어리 규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함
- ⑥ 노동·교육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: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
- ⑦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점검·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

□ 추 부총리는 이러한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, 기재부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줄 것을 당부함

- ① 불요불급한 회의·자료준비나 행사용·의전성 자료 최소화, 보고방식 효율화 → 일하는 시간을 정책개발·품질 향상에 집중
 - 보고는 형식보다 적시성이 중요 → 구두보고를 활성화하고, 필요시 화상회의·문자·통화를 활용한 보고도 적극 활용
 - 보고에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무관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
- ② 실국간·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팀(One-Team)으로 협업
 - 남보다, 타부처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할 것!!
- ③ 현장에서 답을 찾고, 민간전문가·이해관계자와 폭 넓은 소통 확대
- ④ 많은 정책은 이해관계 그룹 간 갈등과 충돌이 다반사 → 이를 해결·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
- ⑤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은 고품질 정책마련의 첫 단계 → 담당 업무에 대하여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,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!
- ⑥ 언론소통을 강화하고(특히 간부들), 언론기사 모니터링 통해 필요시에는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

□ 추 부총리는 또한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임을 강조하며,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하여 구상중인 향후 인사운영 방향을 공유함

① 고시기수·입사순서 중심의 인사관행을 개선

- 과감한 기수파괴 인사를 도입 (이미 일부 개시)
-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인센티브 적용

② 사무관 등 실국간 전보제한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등 자주 제기되는 인사애로 완화 방안 강구

③ 유연근무 활성화: 금요일 오후 4시 퇴근(격주)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실국장들의 배려 당부

④ 공감소통을 적극 참고하고, 타운홀 미팅 등 직접 대면소통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

⇒ 향후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

□ 추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가 다양한 정보와 정책아이디어가 공유·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되,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